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5 • 5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다윈주의에서 신다윈주의까지



어떤 돌연변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일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진화에 의해서 일까? 창조의 산물이라면 창조자의 존재와 창조의 목적을 전제하게 되는 반면에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를 전제하지 않게 된다. 전자는 유신론적인 접근이고 후자는 무신론적인 접근이다. 물론 하나님이 진화과정을 이용했다는 어설픈 타협이론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한 이론도 분명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장한 태도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이 출판됨으로써 널리 보급되고 생명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게 됐다. 부모의 바람과 달리 다윈은 의학이 아닌 신학을 하게 되는데, 신학 학위를 받자마자(22세) 영국 해군함 H.M.S. 비글호의 세계탐험에 5년 동안 박물학자로 합류한다(1831-1836). 이 탐험 중 다윈은 동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 섬에서 방울새(핀치)들의 부리가 여러 종류인 사실을 관찰한다. 20여 년 후 그 때의 관찰을 바탕으로 진화론 이론을 전개하

여 출판한 책이 '종의 기원' 이다.

진화론 옹호자들은 그가 대단한 과학적 사실을 관찰 발견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다윈은 그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 18세기의 진화론자들, 그리고 동일과정설을 주장한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미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진화 사상에 물들여진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방울새를 관찰하며 그가 머리 속에 그리고 있던 진화의 생각에 맞추기 시작했으며, 결국 환경의 변화는 한 생물체에 변화를 초래하여 자연선택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자신의 진화론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 이론은 비논리적이며 뒷받침 해줄 증거도 없었으나, 이를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심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다윈은 1858년에 자기보다 연소한 박물학자 알프레드 월레스의 엷세이에 동일한 이론이 소개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라이엘의 부추김으로써 1859년 가을에 '종의 기원' 을 출판하게 된 것이다. 15 실링의 가격이었던 초판 1,250부는 출판 당일 매진된다.

이 책의 강조점은 '생명체는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한다' 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 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시작 했다는 전제 하에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체는 변이나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변이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통하여 개나 고양이, 결국 사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철학적인 생각이지 과학적 연구의 산물은 아니다. 과학에 필수적인 관찰이나 반복실험이 불가능하며, 과거에 살았던 화석에 남겨진 증거도 없다. 유전학적 근거나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도 없다.

실제로 생물체의 다양성은 대단하다. 창조주간 육일 동안에 만들어진 다양한 각 종류

(min)의 동 식물은 양쪽 부모로부터 모든 유전 인자의 반씩을 받는다(recombination). 이 이유 때문에 후손들로 내려 갈수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는 볼록이던 치와와이던 항상 개 종류에서 머물지 다른 종류의 동물로 변하지 않는다. 부모의 특징이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발현되기도 하고 잠재되었다가 나중 세대에 발현되기도 하지만 선조에 없었던 특징이 후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고리 멘델이 발견한 유전 법칙이다. 다양하더라도 종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유전법칙의 등장으로, 변이로 다양해진 생물이 자연선택에 의해 끝없이 새로운 종을 만든다는 다윈의 진화론은 이 유전법칙이 알려지게 되자 곧 곤경에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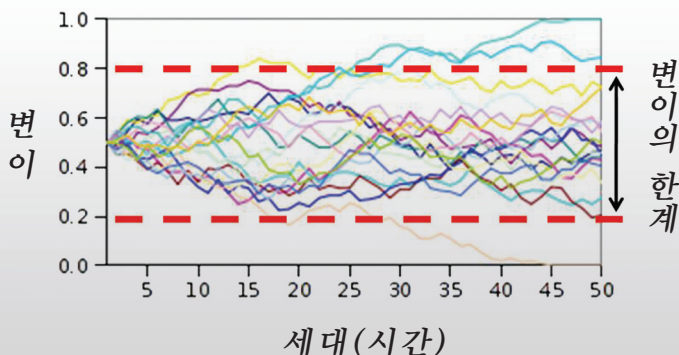
유전법칙으로 흔들렸던 진화론자들은 194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고심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신다윈주의(Neo-Darwinism)이다. 신다윈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은 이전의 일반 변이가 아닌 무작위적인 돌연변이(random mutation)와 자연선택이다. 돌연변이란 생물체에 가끔씩 발생하는 유전정보의 복사 오류로 생기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 오류들은 항상 정보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어떤 돌연변이도 새 정보를 첨가한 예가 없다. 단순한 동물이 더 복잡한 동물로 진화가 되려면 새 정보가 주입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정보손실 과정인 돌연변이가 진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도 모든 생물이 다양하게 진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자연선택을 주장한다. 한 예로서, 그들은 다윈이 관찰한 갈라파고 섬의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방울새의 변화를 소진화라고 부르고 소진화가 가능하면 대진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바드의 생물학자이며,

생존하는 다윈론자로는 가장 리더 격이었던 언스트 메이어는 이런 주장이 아주 사려 깊지 않은 추정(extrapolation)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후계자였던 스테판 제이 굴드 교수까지도 “신 다윈주의는 실제로 죽었다” 라고 했다.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도 내에서 환경에 적응한다. 방울새의 예도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개체의 생명유지를 위한 창조자의 지혜로운 설계를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생명체는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한다’ 는 그들의 원리에서 ‘시간’ 과 ‘변화’ 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생명체의 돌연변이가 자연도태를 당하지 않고 생존하려면 변화가 있더라도 큰 변화는 아니며

돌연변이의 한
계와자연선택/
어떤 종류의 생
물이든지 각 생
물에 주어진 변
이 한계를 벗어
나면 자연선택
의 힘에 의해 그
생명체는 살아
남지 못한다.



야 한다. 예를 들면, 말 새끼들에 섞여 돼지 새끼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선 부모가 양육하기를 꺼려할 것이고, 동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게다가 자기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배우자 선택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갑작스런 큰 변화는 적자생존 보다는 자연도태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들을 피하려면 아주 미세한 작은 변화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큰 변화(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세한 변화가 한 생명체에 나타났을 때에는 같은 동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 변화가 우월한 변이라면 당연히 적자생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다. 그런데 조금씩 서서히 변하려면 길고 긴 세월이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수천년이란 지구의 나이가 현대 지성인들에게 받아 들여지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진화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논리로 창조론을 주장하는 크리스천들도 지구의 나이가 45억년이라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는데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다.



최인식 회장
의사



수십억년의 지구나이와 배아줄기세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와 상관 없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동정녀에게서 한 남자인 예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대 과학을 다 동원한다 해도 설명될 수 없다. 세상은 과학자들이 코웃음 치는 이런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은 이 동정녀 탄생을 사실로 굳게 믿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탄생된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그대로 믿는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현대 과학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성경 그대로 믿으면서도 유독 창세기 1장에 대해서는 성경 그대로 믿을 확신이 없다. 대표적인 불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어지는 6일간의 우주 창조 사건이다. 왜 이 부분에서는 성경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잘못된 과학 지식 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계통과 그 믿음 하에서 선택된 수십억 년의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에 의한 진화론적 지구역사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는 측정된 값이라기 보다는 최근 지질학자들도 거부하고 있는 동일과정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역사이며, 신뢰하기 어려운 가정들에 근거해서 계산된 값이다. 실제로 어떤 세속 과학자도 화석의 나이나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는다!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reality)이 아닌 긴 연대와 진화론에 세뇌되어서,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동정녀 탄생은 믿으면서도, 그보다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6일 창조 사실은 성경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지구나이 같은 이런 작은 불신은 더 진전되어 성경 전체를 불신하게 하는 문을 열어 주어 진화론이 들어 설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며, 급기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

상이 아니라 포유동물에서 진화 되었다고 우리와 자녀들을 거짓에 물들게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어느 한 구절도 사람에게 의해서 변경되면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 사실은 과학, 사회, 문화, 신학 등 모든 것의 기초다. 성경 그대로의 창조 사실과 다른 기초를 가지면 시작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

예를 들면, 성경과 다른 수십억 년의 창조 기초를 수용하면 결국 진화론이 들어오게 된다. 정통 진화론은 아니더라도 타협된 진화론이라도 들어 오게 된다. 그런데 이 어떤 모양의 진화론이라도 일단 들어오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사람의 조상이 다른 동물에서 진화 되었다는 정통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아담의 존재를 부인하면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인 예수님의 설 자리를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타협된 진화론의 믿음은 사람이 창조되기 수억 년 전부터 여러 번의 격변과 멸종 사건이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계획성 없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역할을 왜곡시켜 버린다. 따라서 창조 사실을 조금만 바꾸면 결국은 교회의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는 낙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도 공헌하게 된다. 수억 년의 지구 생물 역사를 말하는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생물들은 한 조상에게서 진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란에서 성체로 자라는 과정이 마치 진화하는 과정과 같아 배아 당시에는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할 수 없어 낙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낙태 허용 시기인 12주의 태아는 이미 모든 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배아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므로 암세포를 제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배아를 마음대로 다루는 일이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유일한 정보를 가진 난자와 유일한 정보를 가진 정자가 합쳐진 유일한 수정란에서 온 사실을 곧 알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과 달리 변치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의 모양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사람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시 139:6).

그런데 지난 3월 9일 미국의 새 정부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성경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배아가 사람이며 따라서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이미 형성된 생명을 죽이는 것임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일은 그 시기가 조금 빠를 뿐 낙태와 똑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배아상태를 거치지 않고 출생한 사람이 있을까? 모든 사람은 한 때 배아였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한 그 사람도 배아였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엄연히 살인 행위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수십억 년을 무기로 삼아 교묘하게 예수님의 위치를 제거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낙태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일들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창조주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중학교 시절, 친구가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을 통해 원숭이가 사람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인류의 기원과 달랐지만, 웬지 제게는 사람은 원래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래부터 원숭이로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창조론을 믿게되어 고등학교 시절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 지구과학 선생님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런 과목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업시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험문제에서 창조론 쪽에 답을 쓰거나 하지는 않는 온건한(?) 창조론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제게 진화론 과학자와 일대일로 담판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다가왔는데, 바로 제 대학 입시 중 면접시험에서였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지원했는데, 지질학과 교수님이 저의 면접관이 된것입니다. 교수님은 제가 입시원서에 기독교인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시고 딱딱하고 권위있는 목소리로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을 차근차근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은 흥분하셨고, 면접은 30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기다리는 학생이 많아 다음 학생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교님의 부탁으로 논쟁이 끝났고, 얼굴이 붉어진 그 분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 때 제게는 면접을 망쳤다는 걱정이 아닌, 말할수 없는 기쁨과 든든함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가 지원한 식품공학과에 합격시키셨습니다.

4년의 대학과정을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학원시절을 보내는 6년 동안 교회의 Youth Group, 성가대 등의 사역을 통해 저와 예수님이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셨습

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출석하기 시작한 서울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는 감사하게도 몇분의 선배님들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1994년 어느 주일날 창조과학 중보기도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주일 오후 교회의 어느 작은 방에서 있었는데, 당시 KAIST 교수 김영길 장로님 등등 훌륭한 교수님들이 십여명 가량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한 주간 동안 전국에서 개최될 창조과학 세미나와, 각 지부의 사역, 새로 출판할 책들과, 창조과학 사무실의 일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지방에서 일어날 일들을 위해 매 주일 두시간 반동안 딱딱한 마루 바닥에 앉아 기도하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제 마음 한 편에는 저 분들을 통해서 직장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알팍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창조과학 사역에 헌신하기로 마음먹게된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포항에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이 새로 생기는데, 기도 모임의 교수님들이 그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영길 장로님을 포함한 11분의 현직 교수가 사표를 내고 가족들을 데리고 포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 분들과 같이 훌륭한 교수가 되고자 하던 꿈을 가졌던 제게는 이 사건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도대체 창조과학이 무엇이길



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길래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제가 어디서 일하기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며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10 년 동안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조과학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창조과학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두 아이는 제가 하는 창조과학 캠프를 열번도 넘게 참여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머천다잉과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과학자들이 만든 전문적 콘텐츠를 청소년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알릴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미 100회가 넘는 창조과학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를 대상으로도 창조과학 캠프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얀 도화지와 같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진화론의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려지게 하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일에 헌신할 사역자를 보내주소서. 미주 한인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리더들에게 이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낙경 박사
식품공학



한국방문 | 박물관 투어 | 워십 | 창조과학학교

이재만 부회장 한국방문 마쳐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3월 4-23일 한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한동대학교, 강원대학교, KAIST 등 6개 대학과 온누리교회, 독산동교회, 매일교회, 분당가나안교회, 공주 꿈의 교회, 춘천 예담교회, 대구 참좋은교회, 그리고 전북 이랑학교 등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8회에 달하는 땀땀한 일정을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세미나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행하실 때마다 남겨놓으신 수많은 증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책인 '노아홍수 콘서트' (도서출판 두란노)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이번 책은 노아홍수와 지구의 나이에 대한 지질학적 내용만을 다룬 책입니다. 4월 중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박물관 투어 마쳐

지난 3월 28일 샌디에고 창조과학 박물관과 토리파인 주립공원 해안 답사가 있었습니다. LA 근처에서 모집을 해서 떠났는데 매진되어 떠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당일 답사인 창조과학 박물관과 해안 답사는 당일 프로그램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노아홍수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정기적으로 출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동용 박사의

창조과학 DVD Workshop

뉴욕 창조과학 DVD Workshop 훈련은 지난 3월 27-28일 양일 동안 뉴욕 MOM팀 중심으로 7교회에서 약 5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뉴욕 중부 감리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Creation DVD Workshop은 선정된 창조과학영화를 10주 내지 14주 과정으로 교회 성경공부 반에서나 선교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인도자는 기본적으로 6시간의 기초훈련이 요구되며 본 훈련에서 인도자로서 지켜야할 신앙고백과 자세 그리고 난해한 질문에 대한 대처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인도자는 각 DVD 내용에 충실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문의는 630-400-61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창조과학학교

시카고에서는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8기가 시카고 제일 감리교회(담임 김광태 목사)에서 4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개강됩니다. 문의는 847-845-5368나 630-400-61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 출발!!!

6월 4-6일(목-토)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출발한다. 빙하시대 탐사여행은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증거들을 통해 성경적 역사와 세계관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유지는 노아홍수와 빙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훌륭한 곳들이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세코이아 국립공원, 그리고 398번 도로를 통해 이어지는 Mono Lake, Owens 협곡, Alabama Hills, Whitney 산은 그 경관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며 더욱 감격할 것이다. 인도는 이재만 선교사가 하며 창조과학 선교회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창조과학과 청소년들을 향한 책임

저는 지난 2월 미주 창조과학 선교총회에서 창조과학 강사로 세움을 받은 김선옥입니다. 부족한 저를 말씀에 증거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제가 이 길을 갈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아내와 작년 1월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MOM의 최순자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우연히 같은 비행기에 동행하게 되어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권면을 받았고 시카고의 이동용 박사님을 소개받으면서 저의 창조과학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MIT에서 화학공학을, Delaware University에서 생화학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창조과학을 잘 모르던 내게 그런 권고는 도리어 부담스러워 처음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 주님께서 창조과학을 하기 원하신다는 확증을 얻으며 곧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그보다 그랜드캐년이 말씀의 비밀,



즉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연이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조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Christianity의 가장 핵심인 성경이 절대적 진리이고 오류가 없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창조과학을 하고 계신 분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ACT의 이재만 선교사님과 최인식 박사님을 비롯,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Answers In Genesis (AIG)의 강사로 영향력있게 활동하고 계신 Mike Riddle, 창조과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The Genesis Flood를 Dr Henry Morris와 함께 저술하신 Dr John Whitcom등 창조과학에 관련 된 많은 분들을 지난 일년간 만나 교제하게 하시면서 창조

과학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하셨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로부터 창조과학이 선교에 얼마나 필수적인 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Ambassador for Christ의 Jim Brubaker 선교사님은 무신론자인 공산권의 선교에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제가 창조과학에 입문하는 것을 격려하셨습니다.

지난 여름 MIT 동창인 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청소년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으로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교과서와 그 친구는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하여서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그 친구와 밤을 새우며 나눴지만 그 친구의 맘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들은 아이가 창조론이 과학적으로도 설명 할 수 있고 진화론의 맹점에 대해 들으며 많은 격려를 받은 것을 보며 교회가 청소년들을 향한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청소년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을 전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교과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진화론을 사실로 배우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70%이상이 믿음을 떠나고 그 추세는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이 창조과학을 통해 성경이 진리임을 믿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옹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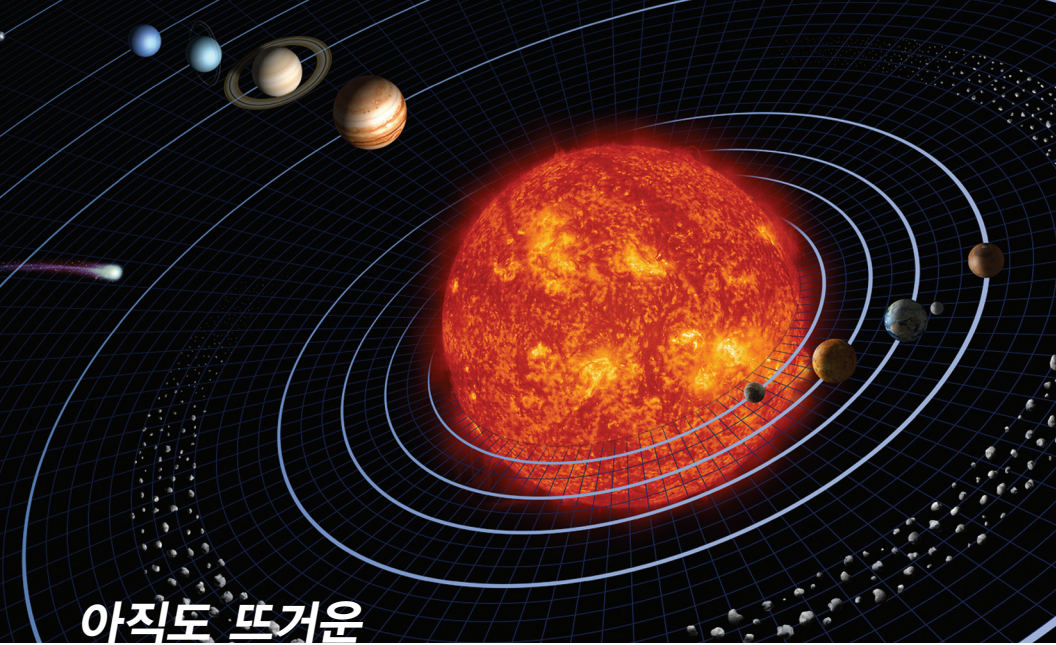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제2세 한인들과 청소년을 향한 부담을 주십니다. 저의 소망은 이 창조과학을 통해 2세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임을 깨닫고 진리가운데 더 뿌리깊게 설수 있도록 돕는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서투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세우는 이 부르심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출애굽기 20:11

김선욱 박사 | 생화학공학



바른 신학을
잘못 적용하면
아무리 귀여워도
어쩔수 없단다.



아직도 뜨거운

목성형 행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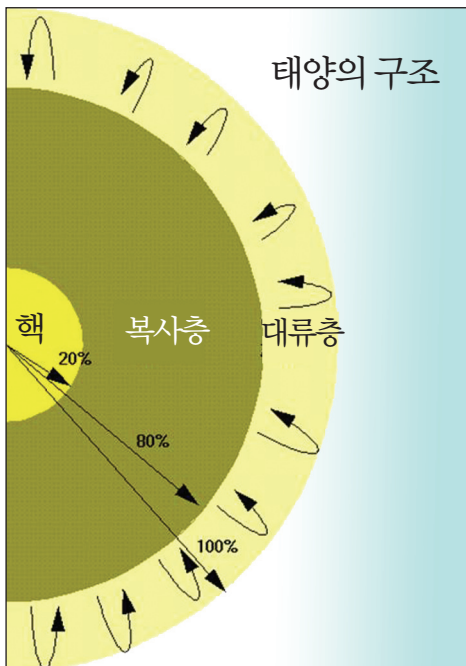
아직도 풍성하게 존재하는 혜성들과 지질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달의 표면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가 젊음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하였다(2008년 12월호). 여기서는 우리 태양계 내의 목성형 행성들에 대한 최근 연구로부터 발견된 과학적 사실들을 통하여 우주의 나이가 젊음을 증거하려고 한다.

그 동안 태양계의 행성들은 모두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다. 그런데 최근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목성은 3×10^{17} 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물론 대부분 적외선(infrared)이지만 목성은 자신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거의 두 배를 방출한다. 이는 100와트 전구 3,000조(3×10^{15})개를 켜놓은 출력에 해당한다. 토성은 목성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의 절반을 생산하지만 질량이 1/4이므로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두 배에 해당한다. 해왕성(Neptune) 또한 자신이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의 두 배 이상을 내보낸다. 천왕성(Uranus)은 아직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 받는 에너지 보다 약간 더 많은 에너지를 복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목성형 가스 행성들은 모두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목성은 스스로 수축함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여겼었다. 스스로 수축하여 중력에너지를 내부 열과 복사(radiation) 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목성 자체의 수축만으로는 그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또 다른 설명은 목성의 중심으로 헬륨(He)이 쏟아져 내려서 중력에너지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성과 천왕성에는 표면에는 헬륨이 고갈되어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적합할 지 모르나 목성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최근 과학자들은 목성의 중심에서 태양과 같이 핵융합반응(nuclear reactions)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중수소들이 융합하는 핵반응이 이뤄지려면 그 중심의 온도가 3백만도 이상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태양과 같이 중심에서 핵융합반응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목성에 있는 모든 중수소들이 중심으로 동시에 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여하튼 한번 핵융합반응이 점화된 후 46억~100억년(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연대) 이상 그 열을 유지하며 핵융합이 지속되었어야



하는데 이는 목성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와 헬륨의 양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이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오랜 연대에 치명적인 반증들이다. 또한 융합반응 초기 점화에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최적의 순간 최적의 위치에 중수소 층이 생겨야 하고 동시에 스스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왕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우연의 산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연주의 학자들은 태양계와 행성들은 선화하는 밀도가 높은 가스나 먼지 구름으로부터 46억년 전에 물질들이 압축하여 열을 만들고 그 열이 오늘 날의 태양계를 형성한 것으로 믿는다. 천문학에서 별은 핵융합반응을 통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대한 가스체로 정의 된다. 따라서 세상학자들은 태양을 하나의 전형적인 별이라고

부른다. 그런 점에서 중심에서 핵융합반응이 계속되고 있고 가스체인 목성과 해왕성은 작은 별들이며 작은 태양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계에는 적어도 세 개의 태양이 있는 셈이다.

아직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오랜 우주의 나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젊은 우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태양계 행성들의 구성요소나 기능들을 살펴 볼 때 자연주의자들에게 큰 골치거리가 되지만 창조자의 지혜를 믿는 이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행성들을 조성하셨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성경은 과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것을 포함하여 터치하는 모든 영역에 진리를 제공한다. 이는 사람의 생각 위에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창조과학 강의를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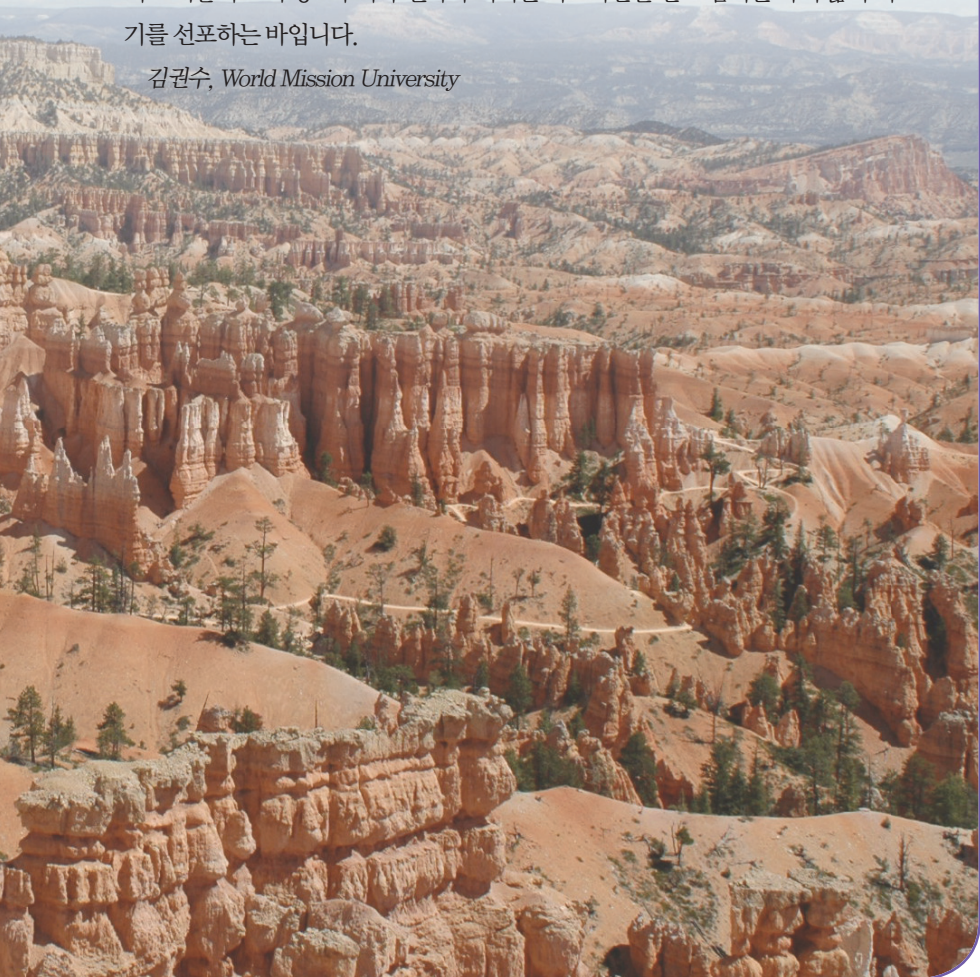
강의 첫 시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나?” 는 교수님의 첫 질문과 답을 잇을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살아 오면서 이러한 질문을 처음 접했기에 잠시 생각해 보고 그래도 창조 과학 시간이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믿는다” 고 답하였었다. 교수님은 학생들 하나 하나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셨고 학생들은 창조자, 구원자, 또는 믿게된 동기로 답을 했다. 모든 학생의 이유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이기에 믿는 것이다.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창조과학 겨울 특강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를 인지하며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기에, 창조과학 강의를 듣기 이전까지의 진화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진화론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화석이나 그 밖의 인류에 관한 일들이 발표되고 진화론에 대해서 때로는 화석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도 그런가 보다 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온 것 같다.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되었다고 하면 성경에 빠진 기록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고, 발견된 화석들이 수 만년전의 것이라면 그런 줄 알고 이해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하여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진화론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과 결합하여 교묘하게 성경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고 믿고 살아왔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 진화론은 오직 중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았다. 이와 같은 진화론은 분명히 믿지 않았기에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 간단히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기에 진화론은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건만 그 날이 오늘의 하루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아담에서부터 노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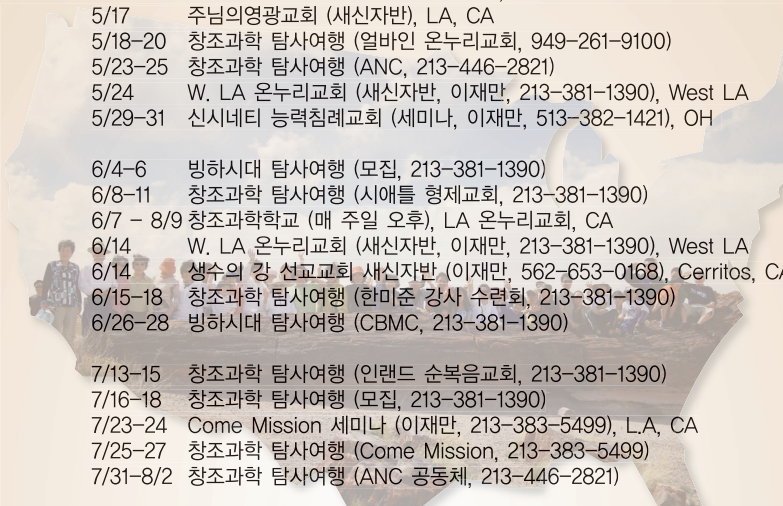
브라함, 모세, 예수님까지 이르는 계보 중에 많은 계보가 빠져있기에 지구의 나이가 오래 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진화론의 사고방식이 내 사고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진화론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 속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오직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김권수, *World Mission University*



2009년 ACT Schedule

- 
- 5/3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5/7-9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 5/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갈릴리 은혜교회, 310-800-5890)
 - 5/17 주님의영광교회 (새신자반), LA, CA
 - 5/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949-261-9100)
 -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 5/24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5/29-31 신시네티 능력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513-382-1421), OH

 - 6/4-6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6/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 6/7 - 8/9 창조과학학교 (매 주일 오후), LA 온누리교회, CA
 - 6/14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213-381-1390), West LA
 - 6/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미준 강사 수련회, 213-381-1390)
 - 6/26-28 빙하시대 탐사여행 (CBMC, 213-381-1390)

 - 7/13-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인랜드 순복음교회, 213-381-1390)
 -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7/23-24 Come Mission 세미나 (이재만, 213-383-5499), L.A, CA
 -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Come Mission, 213-383-5499)
 -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공동체, 213-446-2821)

 - 8/3-5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770-643-1459)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68)
 - 8/10-12 창조과학 탐사여행 (터헝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 8/28-9/6 가테말라시티 및 셀라 (이동용, 630-400-6114), Guatemala

 -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온누리교회, 213-382-5658)
 - 9/18-20 유타 교회 협의회 (이재만) Salt Lake City, UT
 - 9/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본인 교회, 213-381-1390)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